세미나자료 2018-04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초저출산 시대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향후 과제(Ⅲ) :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의 쟁점과 과제

2018. 7. 18(수) 14:00~16:45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8년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선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육아정책 심포지엄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시간을 내어 축사를 해주시는 여성가족부 이숙진 차관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매년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육아지원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 정부의 저출산 대응 기조 변화에 따라"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총 4차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06년"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저출산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지난 10여 년간은 영유아 대상의 보육지원 확대에 주력하였다면, 향후로는 사회적 돌봄의 주체를 보다 다양화하여 국가와 가족은 물론, 기업,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아동을 돌보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향후 육아정책은 보편적 보육지원에서 나아가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에 집중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의 보장과 가족 내 양성평등한 돌봄 문화의 형성을 위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부성권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아동친화적이고 온종일 돌봄이 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요구에 따라 올해 육아정책연구소는 미래세대 아동, 행복한 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와 기업의 아동돌봄 지원 측면에서 육아정책의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의 "미래세대 아동"과 5월의 "행복한 부모"에 이어 사회적 돌봄의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 발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출산 대응은 특정 분야의 개별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저출산 대응의 방향으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및 모든 출생이 존중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육아정책의 방향도 종전 보육지원 위주에서 사회적 돌봄의 주체를 보다 다양화하여 국가와 가족 이외에도 기업은 물론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아동을 돌보는 데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관심은 국가 위주의 보육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관보육만으로 온전히 충족될 수 없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부모들의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보편적 보육지원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이 여전히 발생하고, 초등 방과후 돌봄지원은 영유아 돌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습니다. 또한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부모들의 자녀돌봄 지원 수요는 점차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어 이들 수요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사회가 아동을 출산하여 양육하는 데 안전한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돌봄공동체의 활성화도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할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국정과제로서 제시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의 실현을 위해 선도사업으로 9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3년간 80억원을 지원하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돌봄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함은 물론 돌봄 인프라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까지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운영 모형들이 개발되어 확산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에서는 다양한 운영 사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최근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는 서울 성북구에서 지역내 다양한 돌봄 자원들을 연계하여 이원적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소개해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술인들의 직업상황 등에 부합하는 예술인자녀돌봄센터와 세종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들 운영 사례를 통해 사회적 돌봄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하고, 지역 여건과 부모 수요에 부합하는 돌봄체계의 구축을 위한 쟁점들과 법·제도적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여 지역사회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시 한 번 이숙진 차관님을 비롯하여 이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자분들과, 좌장을 맡아주신 한라대학교 장영인 교수님, 발표를 맡아주신 서울 성북구 아동청소년센터의 박영주 센터장님, YMCA 서울아가야 윤경아 대표님,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하진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님, 한국체육대학교 박선영 교수님, 한양대학교 정영모 교수님, 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 최효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축 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입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초저출산 시대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일 정부합동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40세대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근로 환경, 주거, 출산, 양육, 의료 등 다방면의 개선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보육 위주로 재정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주거, 일·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태어난 아동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임신·출산·자녀양육을 원스톱으로 상담하는 “가족콜” 상담서비스를 구축하고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성 평등한 관점의 정책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여 오는 10월,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육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사회 중심의 다양한 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YMCA에서 발표하는 “예술인자녀 시간제 돌봄사업”이나 성북구 아동청소년 통합 돌봄망 구축“ 서비스처럼 지역사회 맞춤형의 보다 세심하고 주도 면밀한 틈새 돌봄 정책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높아지고 다양해지는 국민들의 돌봄정책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들의 사각지대를 찾아 보완하고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는 보다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시설돌봄의 한계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부담을 줄이고 일·생활 균형을 통해 2040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돌봄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한편, 성차별적 관행과 전통적 성역할 규범은 여성에게 결혼·출산·양육에 있어 많은 기회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없애고, 남녀가 평등하게 돌봄과 가사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노력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포럼이 향후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망 구축에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참석자 여러분께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여성가족부 차관 이 숙 진

2018년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프로그램

□ 주　　제

- 초저출산 시대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향후 과제(Ⅲ)
  :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의 쟁점과 과제

□ 일　　시: 2018년 7월 18일(수) 14:00 ~ 16:45

□ 장　　소: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실

□ 프로그램

시 간	세 부 일 정	
13:30~14:00 (30분)	등록	
14:00~14:20 (20분)	개회	사회 :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국민의례	
	개회사	
	인사말	백선희(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축사	이숙진(여성가족부 차관)
14:20~15:20 (60분)	주제발표 1	**성북구 아동청소년 통합 돌봄망 구축 기본계획** 박영주(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성북아동청소년센터장)
	주제발표 2	**부모의 작업환경에 따른 수요 대응** : 예술인자녀 시간제돌봄사업 윤경아(YMCA 서울아가야 대표)
	주제발표 3	**세종시 공동육아 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소개** 김하진(세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15:20~15:40(20분)	휴식	
15:40~16:30 (50분)	좌장	장영인(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선영(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정영모(한양대학교 교육복지정책 중점연구소 교수) 이정림(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효미(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6:30~16:40(10분)	질의응답	
16:40~16:45(5분)	폐회	

2018년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차 례

주제발표 1.

성북구 아동청소년 통합 돌봄망 구축 기본계획 ····· 01

박영주 센터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성북아동청소년센터)

주제발표 2.

부모의 작업환경에 따른 수요 대응 : 예술인자녀 시간제돌봄사업 ···· 11

윤경아 대표(YMCA 서울아가야)

주제발표 3.

세종시 공동육아 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소개 ····· 21

김하진 팀장(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토 론

좌장: 장영인 교수(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정익중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33

박선영 교수(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 41

정영모 교수(한양대학교 교육복지정책 중점연구소) ····· 45

이정림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 51

최효미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 57

주제발표 1

성북구 아동청소년 통합 돌봄망 구축 기본계획

박 영 주 센터장(성북아동청소년센터)

성북구 아동청소년 통합 돌봄망 구축
기본계획

sb 성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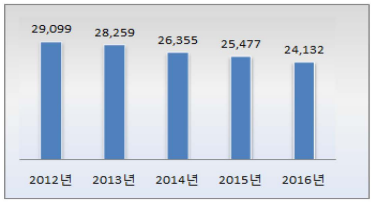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성북아동청소년센터장 박 영 주

Ⅰ. 성북구 아동청소년 돌봄 관련 지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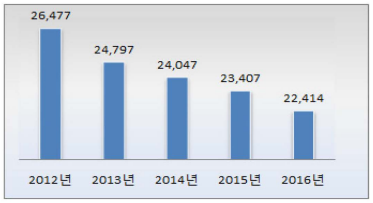
1. 성북구 아동청소년 인구 변화 추이

■ 영유아에서 청소년까지 각 연령층별로 매년 1천여 명 수준의 총 인구 수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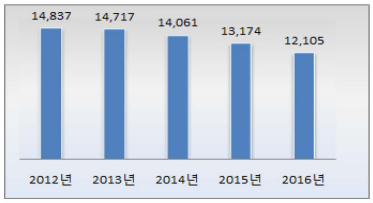
[영유아 인구변동(0~6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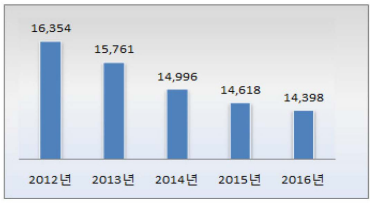
[초등학생 인구변동(7세~12세)]



[중학생 인구변동(13세~15세)]



[고등학생 인구변동(16세~18세)]



2. 아동(초등학생) 돌봄 관련 지표

---------- 자료: 2015년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 나홀로 아동 추산

○ 방과후 혼자 보내는 아동은 38.3%. 혼자 보내는 시간별로 1시간~2시간은 27.1%, 3시간 이상은 9.9%.

구분		거의 없다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4시간 이상		전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1,059	63	282	16.8	174	10.3	94	5.6	71	4.3	1,680	100
가구 대표 성별	남성	528	64.4	133	16.2	93	11.3	47	5.8	19	2.3	820	100
	여성	530	61.7	149	17.4	81	9.4	47	5.4	53	6.1	860	100
가구 대표 연령	20세미만	0	0	0	0	0	0	0	0	0	0	0	0
	20세이상~30세미만	3	32.1	3	29.8	0	0	4	38.1	0	0	11	100
	30세이상~40세미만	465	69.5	122	18.1	33	4.9	32	4.8	18	2.7	670	100
	40세이상~50세미만	510	57.5	141	15.9	134	15.1	53	6	49	5.5	887	100
	50세이상~60세미만	21	41.8	13	24.7	8	14.8	5	10.3	4	8.5	51	100
	60세이상~70세미만	41	100	0	0	0	0	0	0	0	0	41	100
	70세이상	17	82.4	4	17.6	0	0	0	0	0	0	21	100
가족 구성	부부	0	0	0	0	0	0	0	0	0	0	0	0
	부부,미혼자녀	837	61.6	248	18.2	159	11.7	70	5.2	45	3.3	1,358	100
	한부모,미혼자녀	27	36.3	11	15.5	7	9.8	12	16.9	16	21.5	73	100
	부부,양친	0	0	0	0	0	0	0	0	0	0	0	0
	부부,양친,자녀	113	81.6	11	8	4	2.6	4	2.6	7	5.3	139	100
	조손가구	11	100	0	0	0	0	0	0	0	0	11	100
	1인가구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71	71.6	12	12.4	4	4.3	8	8	4	3.6	99	100

3. 성북구 아동청소년 방과후 유형과 교육비 지출 현황

[성북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현황]

(단위 : %)

		사례수	사설 학원	그냥 집에 있음	공공 방과후 돌봄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전체		(194)	76.5	13.5	10.0	6.7	3.3
권역별	권역1	(48)	69.2	18.2	12.5	5.9	6.6
	권역2	(64)	82.8	7.4	9.8	5.7	4.1
	권역3	(46)	79.8	11.3	8.9	8.9	0.0
	권역4	(36)	70.6	21.2	8.2	6.6	1.6
직업	화이트칼라	(114)	82.2	8.5	9.3	6.7	2.7
	블루칼라	(69)	69.4	22.0	8.6	6.1	2.5
	주부	(2)	100.0	0.0	0.0	0.0	0.0
	무직/기타	(9)	54.7	15.7	29.6	12.3	17.2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	0.0	0.0	100.0	100.0	0.0
	100~200만원 미만	(7)	27.5	63.9	8.6	0.0	8.6
	200~300마원 미만	(23)	63.0	30.5	6.4	6.4	0.0
	300~400만원 미만	(54)	79.5	11.4	9.2	7.0	2.1
	400~500만원 미만	(38)	84.2	13.7	2.1	2.1	0.0
	500~1,000만원 미만	(65)	83.2	5.7	11.1	8.9	2.2
	1,000만원 이상	(6)	48.9	0.0	51.1	0.0	51.1

※BASE :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주, 자료 :「2017 성북구 사회조사」

■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규모 : 고등학생 77.2만원 > 중학생 48.7만원 > 초등학생 33.8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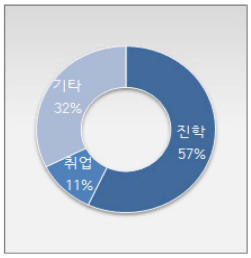
■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사설학원 이용률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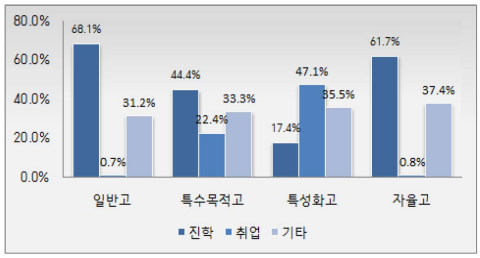
4.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등의 진로 현황

자료 : 2016년 교육통계연감

■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의 전체 총 졸업생 수 4,165명

■ 진학 56.9%, ■ 취업 10.6%, ■ <u>그 외 무직, 미상, 입대자 등에 해당하는 졸업생 32.5%</u>





5. 성북구 연령별 장애인 인구 현황

행정동	합계	연령별								
		9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합 계	17,755	186	455	590	1,004	2,039	3,284	3,950	4,279	1,968
		(1.0)	(2.6%)	(3.3%)	(5.7%)	(11.5%)	(18.5%)	(22.2%)	(24.1%)	(11.1%)

Ⅱ. 성북구 아동청소년 돌봄 시설 현황 분석

1. 아동청소년 돌봄시설 - 1) 영유아 돌봄시설(보육시설)

■ 2016년 기준 성북구 전체 보육시설 정원 총 수 대비 이용율은 86.6%로 <u>정원미달 총 수는 1539명</u>

※ 1개 보육시설 평균 정원 40명을 기준으로 볼 때 총 <u>40개 정도의 보육시설 과잉 공급 상태</u>

※ 어린이집 305개 : 총정원 11,840명. 시설 당 평균정원 38.8명, 유치원 52개 : 총정원 5,207명. 시설 당 평균정원 약100명.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영유아 총 인구 수는 1천여 명씩 감소하였으며 이 경향성이 지속되는 한 **매년 폐업하는 어린이집 총 수는 일정기간 동안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정원이 모집 미달하는 보육시설 수의 증가는 전체적으로 <u>'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 경향'</u>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음.

(단위 : 명, %)

구분	연도	구분	어린이집 합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성북구	2014	현원	10,877	2,355	139	1,125	4,513	2,615	22	108
		정원	12,560	2,769	151	1,282	5,195	2,983	37	143
		이용률	86.6%	85.0%	92.1%	87.8%	86.9%	87.7%	59.5%	75.5%
	2015	현원	10,764	2,787	151	1,020	4,124	2,541	26	115
		정원	12,493	3,336	190	1,136	4,796	2,853	37	145
		이용률	86.2%	83.5%	79.5%	89.8%	86.0%	89.1%	70.3%	79.3%
	2016	현원	10,494	3,109	152	955	3,876	2,230	23	149
		정원	12,033	3,392	190	1,097	4,611	2,442	37	264
		이용률	87.2%	91.7%	80.0%	87.1%	84.1%	91.3%	62.2%	56.4%
서울시	2014	현원	243,432	59,036	2,214	6,844	111,653	52,890	715	10,080
		정원	275,464	66,109	2,464	8,089	126,378	58,623	822	12,979
		이용률	88.4%	89.3%	89.9%	84.6%	88.3%	90.2%	87.0%	77.7%
	2015	현원	238,103	62,656	2,088	6,327	105,478	50,061	752	10,841
		정원	274,132	70,561	2,367	7,475	122,831	55,916	852	14,130
		이용률	86.9%	88.7%	88.2%	84.6%	85.9%	89.5%	88.3%	76.7%
	2016	현원	236,550	67,240	2,005	5,848	102,575	46,284	798	11,800
		정원	270,231	74,851	2,327	7,035	117,842	51,025	903	16,243
		이용률	87.5%	89.8%	86.2%	83.1%	87.0%	90.7%	88.4%	72.6%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서울통계연보」 각 년도

2. 아동청소년 돌봄시설 – 2) 아동(초등) 돌봄시설

■ 2018년 초등 돌봄교실 운영계획

		운 영		대상아동	비 고
		운영기간	운영시간		
초등돌봄	아침돌봄	• 수업일	06:30 ~ 09:00	○ 1~2학년 학생 중심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오전돌봄	• 학교자율휴업일 • 방학	07:00 ~ 13:00		
	오후돌봄	• 수업일	방과후 ~ 17:00		• 급식 제공 없이 19시까지 연장 운영 가능
	저녁돌봄	• 수업일	17:00 ~ 22:00		
연계형 돌 봄		• 수업일	방과후	○ 3~6학년 학생 중심	• 교과 및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계

■ **초등 돌봄교실 운영현황** (2018. 03) ※ 저녁돌봄 등 연장 현황은 18년 5월 중에 파악 가능

돌봄교실 현황		수용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오 후 돌봄	45개소	732	637	14	1	0	0	1,384명
연계형 돌봄	17개소	0	0	101	43	19	6	169명
총 계	62개소	732	637	14	1	0	0	1,553명

■ **지역아동센터·구립돌봄센터 운영현황** (2017년 누계)

○ 시설 정원 총수 대비 월 평균 이용률 90% 수준으로 이용률을 더 높일 필요성

○ 등록 아동청소년 중 <u>연계시설의 부재로 중고생의 차지 비율이 26%로 대단히 높음</u>

※ 지역아동센터 특성상 초등과 중고생 혼합시설로 운영할 경우 서비스질 저하 문제 발생가능성이 높음

[지역아동센터·구립돌봄센터 운영현황 (2017년 누계) **]**

시설 현황	정 원 총 수	월 평균 이용아동수	학년별 월평균 이용아동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고등
총 27개소	898명	811명	98	85	102	108	106	77	235

■ **틈새 돌봄기관**

○ 이용아동 현황은 관리운영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서 유의미성이 현저히 떨어짐

○ 공석 예산이 투입됨으로 <u>틈새돌봄기관 운영매뉴얼 작성이 시급한 상황</u>

[틈새돌봄기관 운영현황(2017년 누계) **]**

시설 현황	월 평균 이용아동 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월평균
총 15개소	120	96	164	121	128	61	71	188	197	35	0	0	1099	167

Ⅲ. 초등 온종일 돌봄 시간대별 수요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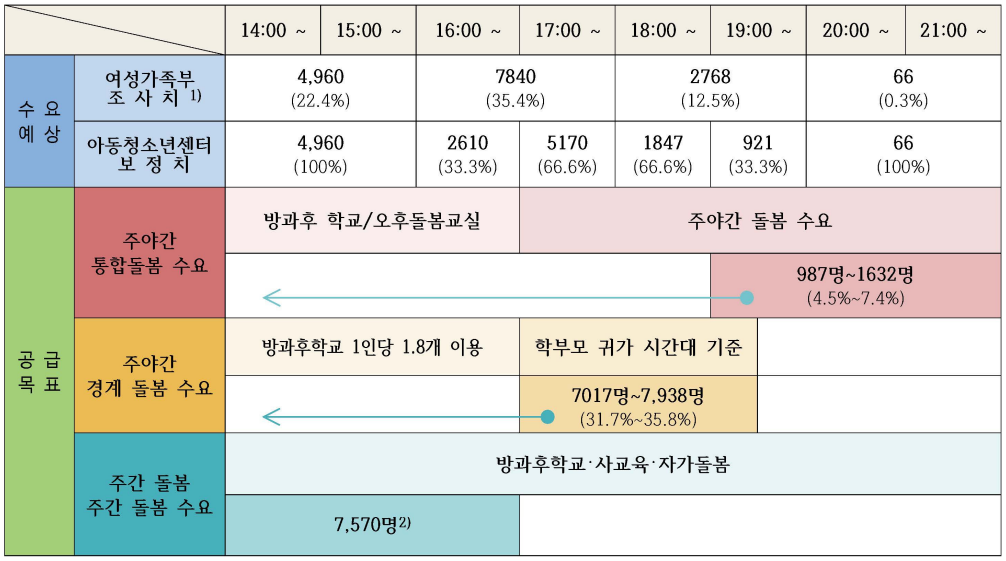
1. 초등 자녀돌봄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평일 시간대

자료: 2015년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단위:천명, %]

구분		돌봄 희망 시간대																			
		06시~08시		08시~10시		10시~12시		12시~14시		14시~16시		16시~18시		18시~20시		20시~22시		22시~익일06시		전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270	7.3	371	10.1	260	7.1	173	4.7	825	22.4	1,301	35.4	458	12.5	10	0.3	11	0.3	3,680	100
가구 대표 성별	남성	125	6.9	195	10.7	125	6.9	86	4.7	419	23	667	36.7	195	10.7	0	0	7	0.4	1,820	100
	여성	145	7.8	176	9.5	135	7.3	87	4.7	406	21.8	634	34.1	263	14.1	10	0.5	4	0.2	1,860	100
가구 대표 연령	20세미만	0	0	3	44.5	0	0	0	0	0	0	4	55.5	0	0	0	0	0	0	8	100
	20세이상 30세미만	0	0	23	16	54	37.2	19	13.2	12	8.5	21	14.8	11	7.8	0	0	4	2.6	144	100
	30세이상 40세미만	142	7.7	209	11.4	171	9.3	102	5.6	373	20.3	614	33.5	215	11.7	3	0.2	3	0.2	1,832	100
	40세이상 50세미만	100	7.1	88	6.3	29	2.1	44	3.1	382	27.1	546	38.7	210	14.9	7	0.5	4	0.3	1,409	100
	50세이상 60세미만	5	3.8	27	19.7	3	2.2	5	3.3	20	14.4	58	42.2	20	14.4	0	0	0	0	137	100
	60세이상 70세미만	23	25.7	15	17.1	4	4.3	0	0	18	20.2	29	32.7	0	0	0	0	0	0	90	100
	70세이상	0	0	4	7.2	0	0	4	6.2	20	33.6	29	48.3	3	4.7	0	0	0	0	60	100
가족 소득	50만원미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7	16.9	0	0	0	0	8	18.4	0	0	28	64.7	0	0	0	0	0	0	43	100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7	8.4	62	19.6	41	13	14	4.6	60	19	78	24.5	29	9.1	6	1.9	0	0	318	100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70	8.1	96	11.1	98	11.3	44	5.1	153	17.7	318	36.7	86	10	0	0	0	0	865	100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47	5.4	77	8.7	69	7.8	38	4.3	190	21.5	349	39.5	107	12.1	0	0	7	0.8	885	100
	4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48	7.5	35	5.5	12	1.9	25	3.8	195	30.4	204	31.9	122	19	0	0	0	0	640	100
	500만원이상 600만원미만	24	6.3	25	6.5	20	5.2	21	5.4	102	26.9	133	35	52	13.7	0	0	4	1	380	100
	6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12	5.4	23	10.6	16	7.2	4	1.9	40	18.4	95	44.2	22	10.3	4	1.8	0	0	216	100
	700만원이상	35	10.6	53	15.9	4	1.2	20	5.9	85	25.5	96	28.8	40	11.9	0	0	0	0	334	100

2. 성북구 초등생 시간대별 돌봄 수요 예측



1) 2015년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자료 (초등학생 전수 조사)
2) 2017년 서울시 방과후 학교 이용률 90%, 1인당 평균 1.8개 프로그램 이용

Ⅲ. 성북구 아동청소년 통합돌봄망 비전

비 전 — **온종일 아이를 돌보는 마을, 아동친화도시 성북**

목 표

주요 목표	세부 목표	비 고
돌봄수요에 부합하는 시기별 • 시간대별 맞춤형 돌봄망 구축	■ **아침 돌봄** (06:30~09:00) : **1,927명** (8.6%)	○ 초등생 총 수 - 22,147명 ○ 법정 보호아동 총 수 - 1,632명 ※ 세부목표는 최종목표임
	■ **오후 돌봄** (12:00~17:00) : **7,570명** (34%)	
	■ **주야간 경계돌봄** (17:00~19:30) : **7,017명** (31.7%)	
	■ **주야간 통합돌봄** (12:00~21:00) : **987명** (4.5%)	
돌봄서비스의 보편성 • 다양성 확보를 통한 안전성과 만족도 제고	■ **성북구내 돌봄시설 운영 매뉴얼 통합** - 기본 서비스 표준화 - 돌봄시설간 연계·공동 프로그램 활성화	○ 돌봄시설별 서비스 편차 해소 ○ 낙인 방지 등
	■ **돌봄 형태의 다양화** - 울타리 돌봄, 둥지돌봄 등	○ 아동의 놀권리 보장 ○ 아동의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
	■ **돌봄 서비스의 특성화** - 학교에서 마을 중심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장 - 돌봄서비스 개발 및 인력 양성	○ 학부모 참여 확대 포함 ○ 자원봉사·사회공헌 연계확대
돌봄망에 기반한 교육복지 통합 연계망 구축	■ 요보호 아동 통합 DB 구축 및 통합 관리·지원체계 ■ 예방과 치료, 상담과 사례관리 프로그램 연계 체계	○ 정보공유·단순협력체계 극복 ○ 미션·비전 공유를 통한 역할분담·성과공유 체계구축
지속가능한 돌봄망 운영 • 지원체계 구축	■ 지역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운영	○ 돌봄시설 이용정보 제공
	■ 방과후 학교 및 돌봄 통합 지원체계 구축	○ 다양성·효율성 확보
	■ 성북구 돌봄망 구축과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	○ 공공성·지속성 확보

Ⅳ. 촘촘한 온종일 돌봄망 구축 전략

돌봄 수요조사와 시설 매칭

■ (예비)학부모 생활권 돌봄시설 사전 견학프로그램 운영
■ 취학 예정 아동의 돌봄수요 사전 전수조사 실시
○ 유치원, 어린이집 활용·가정양육 대상 아동은 아동청소년플래너 활용
■ 전 학년 사전 돌봄조사 및 새학년 시작 전 돌봄시설 매칭 완료(신입생 재학생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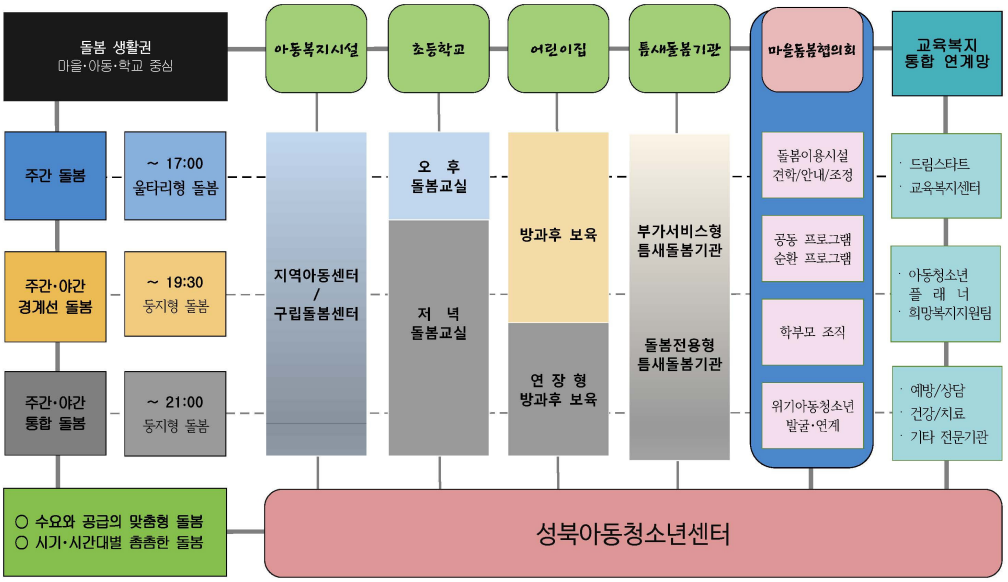
온종일 통합 돌봄망 운영 구조

■ 주간 오후 돌봄(12:00 ~ 17:00) ➠ 울타리 돌봄
○ 돌봄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실내외 안전지역 내에서 돌봄교사 보호아래 여가·놀이·프로그램 등 아동의 선택권이 보장된 자유로운 돌봄
○ 학교의 경우 학교 울타리 안쪽을 울타리 돌봄으로 재정의
- 방과후 학교와 (연계형)돌봄교실 통합·개방 운영, 체육관/운동장 등 활용
- 놀이 큐레이터 및 별도 안전요원 배치 및 자유선택형/아동놀권리 보장 프로그램 운영
■ 주야간 저녁·야간돌봄(17:00 ~ 21:00) ➠ 둥지 돌봄(아침 돌봄교실 포함)
○ 실내 공간을 중심으로 사전 이용신청을 통해 등록·승인된 아동 중심

촘촘한 돌봄망 구축방안

■ 개별 초등학교 전체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는 생활권내에 돌봄시설을 구축
○ 둥지형 돌봄공간이 부족할 경우
① 방과후 보육을 활성화
② 공급초과분 어린이집을 지역아동센터·온종일 키움센터·나함께 돌봄센터로 전환·유도하여 접근성 및 돌봄 수요 충족
■ 둥지형 돌봄의 경우
○ 1~2학년은 초등 저녁 돌봄교실, 방과후 보육을 중심으로 우선 매칭
○ 3학년이상의 경우 지역아동센터·구립돌봄센터·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로 매칭

Ⅴ. 아동/마을/생활권 중심 돌봄시설 통합 운영 모델



[별첨]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료

〈Ⅵ-1〉 초등학교에서 교수학습공간 활용 형태

(단위: 교)

교육청		유형*				총합계
		1	2	3	4	
광역시 (특별자치시 포함)	A	365	183	40	11	599
	B	133	115	45	15	308
	C	168	69	15	3	255
	D	113	86	25	4	228
	E	109	35	6	5	155
	F	102	44	2	1	149
	G	73	32	10	5	120
	H	29	12	2	0	43
도 (특별자치도 포함)	I	800	381	67	12	1260
	J	204	139	34	6	383
	K	134	111	15	7	267
	L	171	170	61	12	414
	M	202	159	37	21	419
	N	165	196	78	35	474
	O	161	208	91	47	507
	P	294	170	46	9	519
	Q	84	31	2	0	117
총합계		3,307	2141	576	193	6,217

* 1 : (교과교실+특별교실+수준별교실+기타)/ 일반교실 = 50%미만
2 : (교과교실+특별교실+수준별교실+기타)/ 일반교실 = 50%이상 100%미만
3 : (교과교실+특별교실+수준별교실+기타)/ 일반교실 = 100%이상 150%미만
4 : (교과교실+특별교실+수준별교실+기타)/ 일반교실 = 150%이상

※ 위의 100% 이상인 학교의 비율을 100%로 조정하였을 때 2,591개(광영 874개 도 1,717개의 돌봄교실 확보 가능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표준모델개발 및 제도화 방안 中 발췌 –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주제발표 2

부모의 작업환경에 따른 수요 대응 : 예술인자녀 시간제돌봄사업

윤 경 아 대표(YMCA 서울아가야)

부모의 작업환경에 따른 수요 대응: 예술인자녀 시간제돌봄사업

사회적기업
서울아가야
윤경아 대표

YMCA서울아가야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 **사업목표**

1. 영유아~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2. 부모에게 자유롭고 편안하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
3. 양육지원을 통한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
4. 취업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일자리지원
5. 부모와 지역사회가 필요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공익적 돌봄기능 확장

□ **주요사업내용**

1. 찾아와서 맡기는 돌봄-시간제돌봄
   시간제(일시/긴급)돌봄서비스 국내 최초 실시: 24개월~초등6. 월~금 10~20시
2. 찾아가는 돌봄-가정파견돌봄(베이비시터)
   가정파견돌봄 일자리 교육 지원 및 취업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일자리 연계 /지원
3. 양육부모·조부모 대상 양육교육 지원 및 육아상담
4. 지역사회/사회적경제/돌봄단체 연대활동 진행

YMCA아가야 시간제돌봄사업 연혁

2006년 4월
국내 최초 시간제돌봄센터 <아가야>센터
전국 16개 센터 운영
운영: 한국YMCA전국연맹

2007년 4월
<아가야> 7개 센터 개소
전국 23개 센터 운영

2009년 초
전국 9개 <아가야>센터: 사회적기업 인증
*YMCA서울아가아가 한국YMCA전국연맹 사업단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2016년 4월
YMCA서울아가야: 당산 시간제돌봄센터 운영 종료

2016년 10월
YMCA서울아가야: <예봄센터> 위탁운영 시작

주요 경력

- **서울시여성재단 서울여성플라자 내 시간제돌봄센터 '별난놀이터' 위탁운영** : 2012년 3월~2013년 6월
- **홈플러스 e파란재단-YMCA서울아가야 '가정육아교사 양성과정' 운영**: 2011년 10월~2014년 1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YMCA서울아가야 협력 '베이비시터 양성과정'** 및 **민간자격증 과정실시**: 2009년~2015년
- **예술인자녀돌봄센터(예봄센터) 위탁 운영**: 2016.10~현재

사례 소개 연구

- **여성친화적 사회적기업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2007, 여성가족부**
- **보육시설의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방안에 관한 연구, 2007, 여성가족부**
- **LH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연계형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2011,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서울시 육아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2012, 서울시여성재단**
-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고용/복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2013년 11월 2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예술인자녀 시간제돌봄사업의 필요성

□ **예술인들은 활동/근로 특성**

- 활동 시간대의 특수성: 주말, 저녁 등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 일반 가정과 다른 특징이 많음.
- 부정기적 활동인 경우가 많음.
- 프리랜서가 많아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을 받기 힘든 가정이 많음.
- 소득수준이 열악하거나 불안정하여 양육비 부담 및 지속적인 양육의 어려움 발생.
-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많음.

□ **예술인자녀 시간제돌봄서비스 필요성**

- 24~36개월 미만의 경우 예술인부모가 다시 예술인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어린이집 적응 전 단계+예술인 활동 시작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함.
-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부정기적이지만 필요시 아이를 맡길 수 있기를 희망함.
- 특히 주말과 방학기간은 형제자매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비스가 필요함.
- 기존의 아이돌보미,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지역내 예술인의 활동 특성 등을 고려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함. (지역적 특성,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운영체계)

⇒ **예술인들의 열악한 소득수준과 특수한 작업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보육/돌봄제도를 보완하는 시간제돌봄서비스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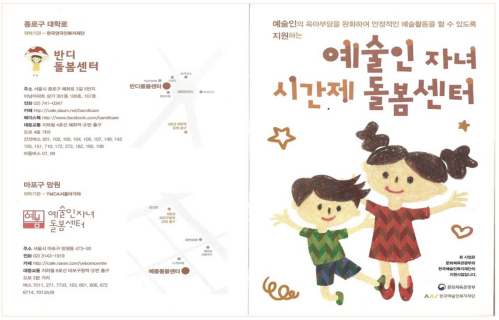
예술인자녀 시간제돌봄사업 연혁

2014년 4월
예술인자녀시간제돌봄센터 1호점<반디돌봄센터>개소
위탁운영: 한국연극인복지재단

2018년 5월
<반디돌봄센터> 위탁운영 단체 변경
위탁운영: 한국연극인부모협동조합

2013년 말
아가야 시간제돌봄서비스를 토대로
예술인자녀시간제돌봄사업 모색

2016년 10월
예술인자녀시간제돌봄센터 2호점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사업 시작
2016년 12월 개소
위탁운영: YMCA서울아가야



예술인자녀 시간제돌봄사업의 목적

유아~아동 돌봄 지원	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 자녀(유아~아동)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시간제 돌봄 지원
예술인 부모 돌봄 지원	지역특성과 예술인의 거주.활동 특성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지원
예술인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기여	예술인 자녀 돌봄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
수요자중심 운영모델 개발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확장가능한 시간제보육 운영 모델 개발

예술인자녀 시간제돌봄센터 운영 현황

	반디돌봄센터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운영장소	**종로구 대학로** *공연단체와 극장이 밀집해 있는 대학로에 위치	**마포구 망원동** *다양한 예술활동가들의 거주와 활동이 많은 마포구 내 망원동에 위치
운영공간	상가건물 1층 (단독주택으로 이전 예정)	2층 단독주택
이용시간	**화-일요일 13시-23시** **월요일 휴관**	**화-일요일 9시-22시** **월요일 휴관**
이용대상	**예술인 자녀 : 24개월~13세(초등6학년)**	
이용요금	**돌봄비: 1시간 기준 500원** **간식비: 1,000원 중.석식비: 1,500원** *생협 먹거리 재료 사용	
근무인력	센터장 1인. 돌봄교사 4인. 행정담당자 1인	
비고		예술인소모임공간 대관, 예술인부모교육 등

예술인자녀돌봄센터 교육방향

자기주도 놀이활동	✓ 양육자와의 분리불안이 있는 유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의 세심한 배려와 자기주도적 놀이활동을 통한 아동흥미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공동체 교육	✓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회성과 공동체성을 교육환경과 교육활동을 통해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한다.
놀이와 작업이 어우러진 예술교육	✓ 놀이와 작업을 함께 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다움의 자기표현과 예술적 승화를 지향하는 교육활동을 진행한다.
감성교육	✓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내고 협동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감성과 사회성을 겸비한 교육을 지향한다.
자연 친화적인 치유 돌봄서비스	✓ 생명.평화 공동체 돌봄철학과 자연친화적인 치유 돌봄 프로그램, 자연친화적 교구, 교재 등을 통해 교사상, 환경, 교육내용 모두에 이러한 목적을 담고자 노력한다.
연령통합의 놀이공간과 자유로운 공간 통합교육	✓ 연령차에 따른 힘의 우위와 수직적 인간관계에서 오는 권위를 극복하고 각각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연령통합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교육이 이루어도록 한다.

월 소식지 제작 및 배포

월 먹거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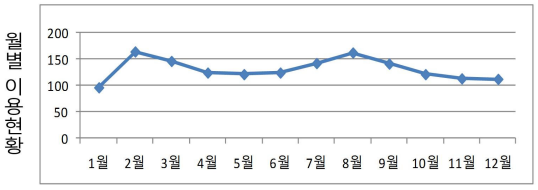
예돌 예술인자녀돌봄센터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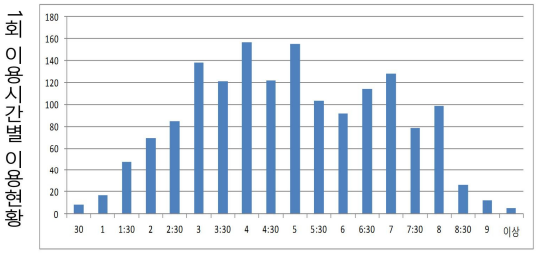
용 도	• 공간 활용
주요 특징	• 아이들이 가정과 같은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공간배치와 환경 구성, 가구 구성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돌봄공간으로서의 특성은 반영하되 예술인부모들의 소모임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구성함.
사무공간	• 직원들이 돌봄이외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
활동실	• 다양한 활동으로 아동들의 감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 • 자유놀이공간과 분리된 공간으로 구성하여 집중도를 높임. • 구성물품: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 낮은 책상 등
예술인부모 소모임 공간	• 예술인부모들의 소모임 진행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나눔 공간 • 2층의 독립된 공간으로서 진행 별도의 화장실 사용함. • 돌봄 공간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임의 경우에는 이용 제한함. • 구성물품: 부모들이 참고할 양육도서 및 안내자료, 낮은 탁자 및 방석 등 • 교사 휴게시간에 휴식공간으로 사용
자유놀이공간	• 영유아~아동의 자기주도적, 연령통합적 놀이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 최대한 놀이활동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정의 안락한 거실같은 분위기 조성 • 구성물품: 아이들의 자유로운 놀이를 고려한 교구/기자재 등
주방	• 간단한 간식, 식사를 조리할 수 있는 공간 • 식사와 간식을 먹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활동을 진행함.
마당	• 아이들 야외활동 공간

예술인자녀돌봄센터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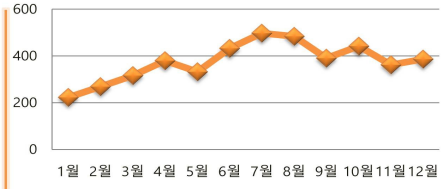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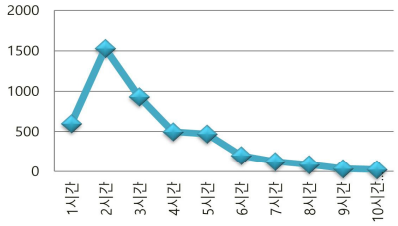
예술인자녀돌봄센터
년 1600명 이용
(2개 센터 년 3100명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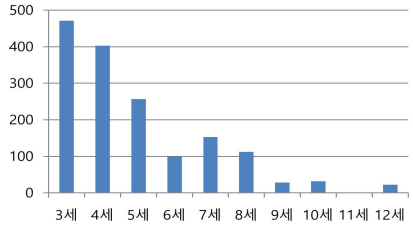


아가야
기존 시간제돌봄 이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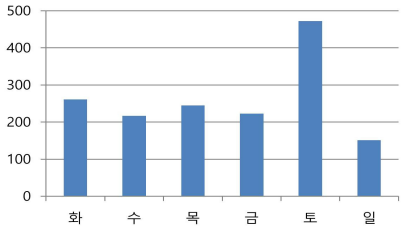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이용현황



연령별 이용현황



요일별 이용현황

이용사례	
보육시설 미용 돌봄-분리불안 있는 유아 돌봄 : 부모 동행 사례	예)조00 (만3세, 남)
	심한 분리불안으로 할머니가 센터에서 함께 지냄. 2016년 12월부터 이용하여 2017년 4월경에 할머니나 부모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도 분리불안을 느끼지 않게 됨.
주말 돌봄	예)자매 (만3세, 5세)
	주말마다 부모님의 활동으로 인해 예봄센터를 이용함. 특히 보육시설 방학기간은 일주일간 오전부터 오후까지 돌봄서비스를 이용함.
보육시설 이용 후 돌봄	예)남00 (만4세, 남)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부모님 활동이 있을 경우 보육시설 이용 이후 오후 및 저녁시간, 주말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함.

향후 과제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 현재 예술인자녀돌봄센터는 문체부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와 같은 돌봄센터에 대한 정부의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 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침을 차용하여 적용하고 있음.

기존의 보육시설, 학교내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이외에 다양한 필요에 따라 지역내 돌봄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운영 체계화 및 지역으로의 운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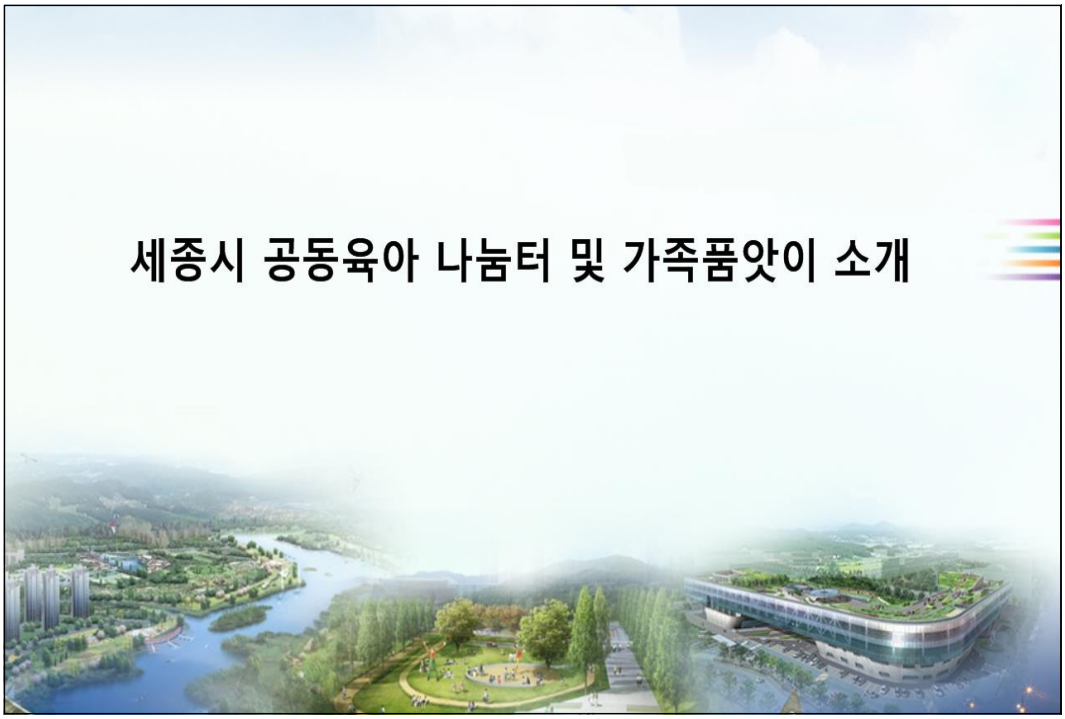
: 현재 서울 내 2곳 운영중인 예술인자녀돌봄센터를 타 지역에서도 요청이 있어 확대될 수 있음. 시간제돌봄센터의 운영 매뉴얼 및 안정적인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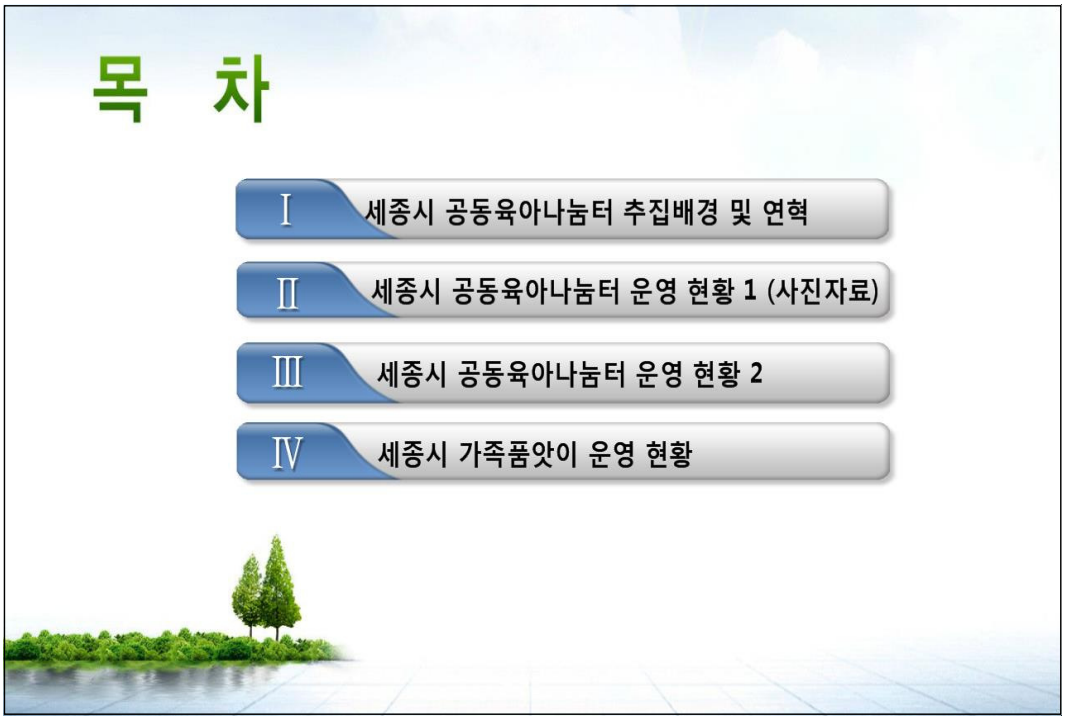
예술인자녀 대상의 시간제돌봄센터 이외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마을돌봄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연구와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주제발표 3

세종시 공동육아 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소개

김 하 진 팀장(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종시 공동육아 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소개


목 차
Ⅰ 세종시 공동육아나눔터 추집배경 및 연혁
Ⅱ 세종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현황 1 (사진자료)
Ⅲ 세종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현황 2
Ⅳ 세종시 가족품앗이 운영 현황

Ⅰ. 공동육아 나눔터 추진배경 및 연혁

법적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자녀양육지원강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2017.07.20]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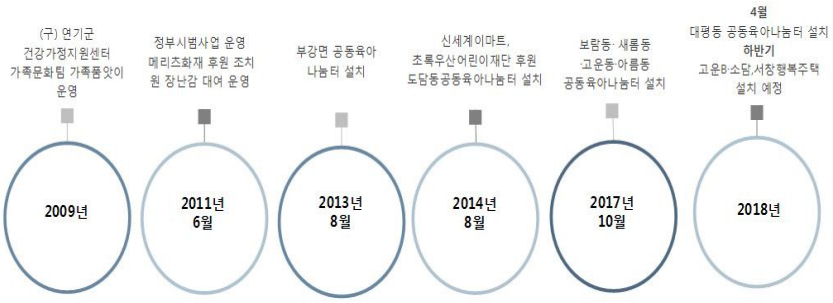
① 전통적인 돌봄 지지체계 약화 → 돌봄 부담 증가 , 다양한 욕구 발생
→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원의 한계

② 도시화, 핵가족화, 지역개발 등 → 지역 내 이웃간 네트워크 약화

③ 공적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 양육친화적 지역사회문화 조성
→ 주민자치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Ⅰ. 공동육아 나눔터 추진배경 및 연혁

연 혁



2019년~2020년	6개소 설치 예정
2021년~	9개소 설치 예정

Ⅱ. 세종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 1

공동육아나눔터 사진자료

부 강

도 담 동

조 치 원

Ⅱ. 세종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 1

공동육아나눔터 사진자료

아 름 동

새 롬 동

Ⅱ. 세종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 1

공동육아나눔터 사진자료

고 운 동

보 람 동

대 평 동

Ⅲ. 세종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 2

○ 나눔터별 운영 실적 현황 (2018. 1월~6월 기준)

나눔 터 명	공간이용(명)	장난감대여(건)	상시프로그램(회기/명)
도담동	11,694명	2,107건	34회기/630명
조치원	8,457명	959건	48회기/822명
보람동	10,669명	2,437건	32회기/613명
새롬동	11,031명	2,290건	36회기/648명
고운동	8,398명	1,609건	32회기/512명
아름동	7,039명	1,645건	30회기/420명
대평동	2,829명	279건	17회기/2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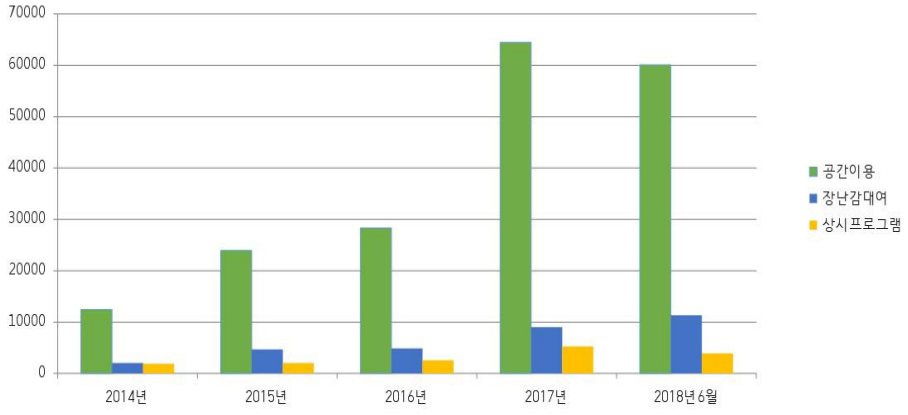
Ⅲ. 세종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 2

○ 년도별 운영 실적 현황

연 도	공간이용	장난감대여	상시프로그램
2014년	12,456	2,026	1,897
2015년	23,957	4,672	2,014
2016년	28,328	4,885	2,547
2017년	64,492	9,006	5,278
2018년 6월	60,117	11,325	3,894

Ⅲ. 세종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 2

○ 년도별 운영 실적 현황



Ⅲ. 세종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 2

운영시간 및 현황

세종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시간

화 ~ 금 : 오전 10:00 ~ 오후 18:30
토 요 일 : 오전 09:00 ~ 오후 17:00
점심 시간 : 오후 13:00 ~ 오후 14:00
정기 소독 : 매주 토요일 17:00 ~ 18:00

▶공지사항◀

최근 일어난 여러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해 위생 • 안전 관리가 강화되어 소독 및 청소, 안전점검 실시로 나눔터 운영시간이 변경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세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내드립니다.◀

최근 일어난 여러 화재, 안전사고로 인해 위생 및안전관리가 강화되어 나눔터 소독 및 안전점검 실시로 나눔터 운영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은 나눔터 위생 및 안전을 위한 청소 및 정기소독 시간 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청소 및 정리시간 : 화~금 : 18:30~19:00
♣ 나눔터 정기소독 시간 : 토요일 : 17:00~18:00

세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Ⅲ. 세종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 2

운영시간 및 현황

- 나눔장터 운영
  : 상반기 6회, 하반기 2회

- 환경인형극 진행

Ⅲ. 세종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 2

운영시간 및 현황

- 상시프로그램
  : 주2회 진행

- "Daddy day"
  : 매월 2째, 4째주

Ⅲ. 세종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 2

지역사회 자원연계

- 신세계 이마트와 연계 자원봉사활동
- 세종 중부발전본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장난감 기증
- 대한노인회 세종지부 노인일자리 연계
- 세종 YWCA → 노인 공익활동『공동육아나눔터 지킴이』 사업연계
- 세종시청 지역공동체과 → 일자리 사업 연계

Ⅳ. 세종시 가족품앗이 운영 현황

○ 가족품앗이 실적

구 분	가족품앗이활동	품앗이전체활동 및 부모교육	지역리더양성교육
2015년	1,669명	12회/443명	9회 / 131명
2016년	2,973명	2회/408명	4회/88명
2017년	3,593명	6회/679명	15회/193명
2018년 6월 기준	2,697명	4회 / 73명	8회 / 120명

○ 가족품앗이 유형별 현황

구 분	그룹 수	가정 수	비고
원도심	6	24	부모 24 / 자녀 33
신도심	18	102	부모 102 / 자녀 131
아빠품앗이	2	8	부모 8 / 자녀 10

○ 2018년 가족품앗이 현황 (24품)

총계	부	모	자녀명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10세	11세~13세
290명	8명	118명	164명	18	23	37	30	20	26	11	16	0

Ⅳ. 세종시 가족품앗이 운영 현황

가족 품앗이 운영현황

- 품앗이 전체 프로그램
- 품앗이 상시 프로그램
- 품앗이 부모교육

Ⅳ. 세종시 가족품앗이 운영 현황

가족 품앗이 운영현황

- 품앗이 사업설명회
- 품앗이 활동 모습
- 품앗이 코디네이터 활동
- 품앗이 월례회의

Thank you

감사합니다

토 론

토론문 1

정 익 중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1

정 익 중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 안·밖 방과후돌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방과후, 방학중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의 돌봄 컨트롤타워 및 전달체계를 통해 돌봄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중심 돌봄을 확대하고, 중앙-지방-돌봄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 주체들이 이러한 돌봄의 방향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여러 정부부처가 관여하면서 실타래처럼 꼬여있어서 그 매듭을 지역에서 풀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 돌봄은 단지 돌봄에 그치지 않는다.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아동의 교육이나 부모의 취업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가구소득이 높다면 아동은 방치되지 않고 학원이나 사적 돌봄을 통해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 아동은 공적 우선 돌봄의 대상이 된다. 저소득층 부모의 정보가 충분하다면 돌봄의 공백 없이 방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복지는 신청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제대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방치될 수 있다. 또한 우선순위가 낮은 중산층 맞벌이 가정 자녀는 공적 돌봄에서 가장 소외되기 쉽다. 더불어 2017년 신학기에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건강보험 가입 여성 15,841명이 퇴사한 것을 보면 여성에게 초등돌봄 공백이 출산 이후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2번째 위기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후·방학중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부모들이 가장 경력단절의 위기를 경험하는 때가 돌봄의 위기가 가장 극명해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인 것을 보면 돌봄은 아동 보호는 물론 고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는 돌봄에서 적절한 교육기능을 제공한다면 사교육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교육 격차를 보완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 교육계에서 논의

되는 여름 학력저하(summer slide)나 Entwisle 등이 주장하는 수도꼭지 이론(faucet theory)도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이 주장들에 따르면 학기 중에는 가정환경과 상관 없이 학업성적의 향상이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방학이 지나고 나면 가정환경에 따라 성적 향상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Entwisle et al., 1997).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 자원이 고르게 제공되는 학기 중에는 누구나 학업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반면 방학이 되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제공되는 가정내 교육 자원은 빈약하고, 좋지 못한 지역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교육의 수도꼭지가 잠기게 되고 여름방학 동안 학력저하가 일어나게 된다. 이에 반해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들에게는 가정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원의 수도꼭지가 방학 기간에도 열려 있고, 이 기간 동안에도 캠프, 사교육, 가족여행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기계발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방학기간을 경과하면서 가정환경에 따른 학업성적의 격차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남기곤, 2018). 그러나 우리나라는 방학만이 아니라 방과후 지나친 사교육으로 학기 중에도 자원이 고르게 제공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주장은 학생들의 교육성과에 교육 공백이 있는 방과후나 방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돌봄은 계속 이슈가 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는 구호로는 좋은데 그 실체가 불분명한 가운데 실제 사례를 통해 정책적 함의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번 심포지엄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2가지 모두 의미 있는 사례이지만 이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을 토론거리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유사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전달체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목표 또는 성과 달성에 바람직한지, 이러한 문제를 지역사회만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사업,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사업이 부처 간에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 돌봄사업 간 연계 부족으로 유사·중복과 돌봄 사각지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부처 간, 중앙-지방-돌봄기관 간 분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아동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돌봄 공급이 불충분하다면 구매할 여력이 있는 중산층에 비해 구매능력이 제한되는 저소득층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욕구가 발생하는 맞벌이 가족의 나홀로 아동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돌봄 전달체계가 여전히 분절되어 지역 내 돌봄 공급 조정·배분 및 서비스 자원의 활용, 돌봄기관 간 연계·협력 등 통합적 지원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단위 돌봄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교

육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처간 분절적 전달체계 하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역돌봄협의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성북구의 마을돌봄협의회, 아동청소년플래너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다면 다른 지자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부모를 통해 돌봄 수요를 파악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관심있는 부모는 제대로 된 수요를 조사에 제공할 수 있지만 관심 없는 부모는 이러한 조사를 무시하기 쉽다. 따라서 부모만 조사해서는 명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성북구 사례 3페이지에서 가구소득 1,000만원 이상 아동이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의 공공 돌봄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보면 소득이 정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의 빈곤이 관계의 빈곤, 정보의 빈곤으로 연결되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저소득층 학부모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 다각적 측정(triangulation)이 중요한 것처럼 이러한 수요조사에서도 다각적 측정이 중요하며 특히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 돌봄이라고 하지만 학교가 소외되어서는 절대 성공하기 어렵다.

둘째, 지역에 따라 돌봄 수급과 학교 및 돌봄기관 여건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돌봄 제공기관이 존재하는 도시지역에 비해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분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거나 지역아동센터 수가 적어 돌봄의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도시 인구밀집지역 등 돌봄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돌봄의 틈새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 사업 속에 포함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 자녀 시간제 돌봄사업도 틈새를 잘 보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틈새는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주어야 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2017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동으로 다함께 돌봄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울산 북구, 경기 과천시, 충북 청주시 등 10개 지역의 10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다함께 돌봄 사업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영유아와 초등학생에게 열린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도서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여성문화센터, 보건소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시설의 유휴 공간 등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있다. 시간제 돌봄, 등·하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간식 또는 식사 제공 등 지역여건,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함께 돌봄 사업에서 이러한 일시, 긴급돌봄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아마도 다함께 돌봄이 확산되면 예술인 자녀 돌봄사업도 이에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공급자 측면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홍보하기도 쉽지 않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더라도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 명칭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보다 돌봄이면 동일한 명칭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돌봄영역이 중복되어 보이는 것은 비슷한 사업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계 협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첫 단계로서 중복의 가능성이 높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의 돌봄서비스를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의 통일이 요구된다(정익중 외, 2014). 이러한 명칭의 통일은 빈곤층 아동이 이용한다는 낙인효과를 제거하는 동시에 통합된 돌봄서비스 이미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명칭을 동일하게 가져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을 줄일 뿐만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는 인력, 프로그램, 시설 등을 일관성있게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현재까지 돌봄서비스는 비슷한 대상에게 비슷한 서비스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명칭이 달라서 명칭 차이로 인한 차별이 존재한다. 학부모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초등돌봄교실만 인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편이다. 따라서 명칭을 통일하고 예를 들면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를 통칭하여 '방과후센터' 라고 명명 가능하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추후 명칭에 관한 공모 사업을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 수 있는 명칭을 정할 필요 있다.

셋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서로 다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평가기준 등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인 관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익중 외, 2014).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강사와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일률적이지 못한 현재 각 부처별 돌봄서비스의 기초적 내용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여 각 부처의 돌봄사업이 일정 질적 수준 이상 유사한 내용으로 제공되도록 서비스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돌봄서비스 전담인력의 임금, 강사료 단가, 교육 및 연수의 내용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한 지역사회 내에서는 어떤 기관이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동일한 질적 수준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된 명칭 아래 시설기준, 인력기준, 평가기준 등을 동등하게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임금테이블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돌봄 종사자의 인건비는 정부의 관련 예산 확보, 해당 학교 및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자체 등 다양한 변인에 의해 인건비가 임의적으로 확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돌봄 종사자의 사기저하뿐 아니라 이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각 돌봄 사업의 운영책임자 및 실무자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임금테이블을 마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돌봄서비스 간에 전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통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내에서는 어떤 기관이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든 동일한 질적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 내 돌봄서비스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가 자신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통합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DB가 구축되어 종단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될 경우 지역별, 경제수준별, 연령별 등 다양한 인구학적 변인을 기초로 돌봄서비스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수요·공급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의 수립, 집행 및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합 DB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지역사회 내의 돌봄서비스들간의 연계 및 사각지대 해소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사각지대 발굴이 돌봄서비스 배치까지 일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일원화나 정보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복e음(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나 NEIS에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관련 DB들이 연동되어야 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초기방문자가 사정뿐만 아니라 자원도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고도화도 필요하다(홍성대 외, 2011). 초기방문자는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사례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방문자의 발굴이 지역돌봄협의체를 통해 돌봄서비스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성북구의 아동청소년플래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추가된다면 이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남기곤(2018). 좁은 문, 가파른 길, 비뚤어진 사다리.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현안과 정책 제231호.

정익중 외(2014). 부처종합 방과후돌봄 중장기 정책 연구: 부처연계를 통한 돌봄서비스 효율성 제고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홍성대 외(2011). 통합 사례관리 및 자원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총론.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Entwisle, D. R., Alexander, K. L., & Olson, L. S.(1997). Children, schools, and inequality.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토 론

토론문 2

박 선 영 교수(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토론 2

박 선 영 교수(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인 육아정책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전 세대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일천한 지식으로 인하여 주신 토론문에 대한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성북구 아동청소년 통합 돌봄망 구축 기본계획〉에 관한 질문

첫째, 성북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현황에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사설학원 이용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제시하신 표에 의하며 오히려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인 1,000만원 이상의 경우(물론 사례수가 적긴 하지만) 오히려 사설학원 비율이 300만원 미만 가구보다도 낮았으며, 공공 방과후 돌봄에서도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2017년에 국한 된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다른 함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등의 진로현황에서 진학률이 56.9%로 이는 전국 대학 진학률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원인이 육아정책이나 혹은 방과후 돌봄 정책 혹은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흔히 니트족(NEET)이라 구분될 수 있는 졸업생이 32.5%나 되는 것은 성북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차원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니트족이 발생한 이유가 아동청소년 시기에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 통합 돌봄망 구축은 무엇보다 시급하게 이루어져야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돌봄망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통합한 것이 아니라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 시설들 간의 통합 운영 모델을 제시하셨는데 아동청소년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아동법과 청소년기본법 상의 아동 돌봄과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등의 대상이 불가피하게 중복되고 관련 시설들 간에도 법적, 제도적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 청소년센터는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센터에서의 아동과 청소년의 구분은 어떠하며, 여기서의 청소년 돌봄의 정의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인지가 궁금합니다. 또 청소년의 경우 돌봄이라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지도 사실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술인자녀 시간제 돌봄사업〉

보통의 아동과 청소년대상의 정책이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기획되는 반면 부모의 특수성을 고려한 아동청소년대상의 사업이라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부모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한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예술인자녀 시간제 돌봄사업이 2013년에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연구자께서 향후 과제로 제안하신대로 이러한 사업이 확대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마련과 연구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사업과 관계된 효과성이나 성과는 어떻게 측정되어왔는지, 또 안전관리와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가 객관적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효과성 측정과 성과지표의 구성과 실제, 운영 및 사업평가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 론

토론문 3

정 영 모 교수(한양대학교 교육복지정책 중점연구소)

토론 3

정영모 교수(한양대학교 교육복지정책 중점연구소)

최근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다양한 지역의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 앞서 제시한 성북구의 아동청소년돌봄센터 운영 사례, 예술인자녀 시간제돌봄사업, 세종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은 마을을 기반으로 한 돌봄 서비스 제공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담겨있다.

지역사회는 그동안 많은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공적인 제도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원동력이 되어 왔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났던 야학, 안양시민대학, 청주의 일하는 사람들, 마들주민회 등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학습참여자의 주체성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높여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교육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Hugo는 지역 주민들이 협력하여 자신들의 학습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동체를 '지역교육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육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 육아에 대해 학습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주체성을 회복한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세종시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례는 매우 인상적이라고 생각된다. 가장 큰 특징이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들이 함께 모여 육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의 돌봄 품앗이를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녀돌봄 사랑방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적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여 이웃 간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 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통해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자 우리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대상이다. 육아는 하나의 서비스이며 기능이 아니라 아동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며, 아동을 보호할 의무는 지역사회와 마을 공동체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는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보육권리선언 등을 통해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들이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저출산 정책을 펴면서 '돈을 지급하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 왔다. 초저출산 현상이 15년째 지속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착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할 시점에 놓여 있다. 아이를 존중하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마을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은 이러한 활동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다른 정부 부처 사업에서와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육아에 대한 주체를 지역사회 공동체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족 간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진정한 부모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부모와 아이를 함께 지원하는 특징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점을 가진 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공동체를 이용한다는 접근이 아니라 공동육아나눔터가 활성화 되면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통한 마을공동체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제언을 4가지로 제시해 보았다.

첫째, 지역사회를 통한 육아는 정태적이 아니며 지역사회 주민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가는 특징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즉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육아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공동체만이 지닌 문화적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는 전국단위의 표준화된 전략을 통해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안을 지역사회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형성된 육아 공동체를 육아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육아는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고 덜어내야 할 짐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사랑해 주는 보호자와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다. 우리는 육아공동체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인식하고 부모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고 바람직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셋째,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돌봄 활동의 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은 지원방식이 서로 상이하며 지원 예산도 다르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돌봄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넷째, 육아담당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마을공동체 안에서 육아 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을 속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관계의 문제”이다. 또한 부모가 어떻게 자기 가족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갖는가에 대한 부분도 매우 역동적이다. 따라서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의 역동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육아담당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토 론

토론문 4

이 정 림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4

이 정 림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최근 한국의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 자체만을 유도하고 강조하기 보다는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태어난 아이가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걸쳐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숙고의 결과 이제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신뢰의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 시에는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결혼적령기와 가임기 여성에게 오히려 부담과 강요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직시한 것이다.

핵가족화로 인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족 차원에서의 지원이 어려워진 현재 사회에서 젊은 세대들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국가적 지원 없이는 이들에게 출산과 양육은 생애 주기에서의 자연스럽고 행복한 일이 아닌 부담으로 다가갈 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제 가족단위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육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늘의 발표 주제는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고 보인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의 사례로 공적 돌봄이라 할 수 있는 지자체 운영 사례로 성북구 사례와 민간 돌봄 사례로 예술인자녀 시간제 돌봄 사업 운영에 관한 소개는 향후 지역사회가 지향하여야 할 돌봄 체계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가 크다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서도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오늘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먼저, 지자체 중심의 성북구 사례는 성북구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메꾸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사업이 함께 협력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사업을 운영한다는 점은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모범 사례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함으로서 돌봄 체계의 중복을 방지하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북구 사례를 통하여 초등학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운동장/체육관 사용에 관한 제안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었고, 아동의 놀이권 보장 등과 관련하여서도 관련 전문가들이 제안하기도 하였지만 이를 실제적으로 목표로 삼고 실현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았음을 감한할 때, 성북구에서 이를 사업화하고자 하고 구체화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사료된다. 초등학교 시설 사용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요원 배치 및 놀이를 조장하기 위한 놀이 큐레이터 배치 등에 관한 사업 계획과 실현은 선도적이라고 보인다.

다음으로, 부모의 직업 특성이 반영된 돌봄 지원 사례로서의 예술인자녀 시간제 돌봄 사업은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의 또 다른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부모 직업이 예술인이라는 특정 직업 상황을 고려하고,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돌봄 시간을 운영하고, 예술인 부모가 가진 재능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하는 다소 독창적인 돌봄 운영 방식은 앞으로 특정 직업군과 그런 직업군이 많이 모여 있는 특정 장소에서의 돌봄 사업 운영의 좋은 예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영유아 자녀를 둔 예술인들의 경우, 예술 활동을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 수입이 적은 경우가 많고, 고학력의 예술인들이 많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만의 특성화된 돌봄 지원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예술인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예술인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예술인 부모들이 예술 활동을 중단하거나 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들 부모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다음 세대 예술인 자녀들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여겨진다. 예술인자녀돌봄센터에서 지향하고 있는 교육방향은 영유아시기에 가장 중요한 감성 및 정서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고, 놀이 중심의 공동체적 교육활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예술인 부모로서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건강하고 건전한 영유아 발달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두 가지 사업에서 좀 더 보완되기를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성북구의 경우, 아동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을 위한 보호와 돌봄, 가정의 해체 위기에 처한 가정 및 장애아 자녀를 둔 가정 등과 같은 취약계층 가정 자녀들의 돌봄 사업도 관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사업도 보다 더 확산되고 촘촘하게 계획되고 실현되기를 소망해본다.

예술인자녀시간제 돌봄센터의 경우, 발표자도 언급하였듯이 예술인자녀시간제 돌봄센터와

같은 시간제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 제1호 예술인자녀 시간제돌봄센터인 반디돌봄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까지 처해졌던 점을 고려해볼 때 이들 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비단 반디돌봄센터 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이와 같은 시간제돌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부딪히는 당면 문제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성북구 아동청소년 통합 돌봄망 구축사업과 예술인자녀 시간제돌봄 사업과 같은 사업이 전국적으로 더 많이 확산되고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돌봄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지역사회 내의 돌봄이 필요한 곳에서 선구자적으로 앞장서서 실현하고 있는 두 사업에 대하여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토 론

토론문 5

최 효 미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5

최 효 미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양육비 지원 및 형평성 제고,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안이 자녀에 대한 돌봄의 문제라 할 것이다. 영유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2012년 영아 무상 보육, 2013년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 등의 도입으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돌봄의 지원체계가 정립되었으며, 초등학령기 진입 이후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 돌봄 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돌봄 지원 사업이 수행 중에 있다. 영유아 아동 돌봄 지원이 이제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이 과정에서 오히려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집중적 지원을 요하는 취약계층 등의 돌봄 필요에 대한 대응이 약화되었다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예산의 배분이나 지원 체계의 구축에 있어 다수의 수요자(영유아,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이 후퇴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가 하면, 가구의 상황이 특수한 경우 오히려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결국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정부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할 것이다. 즉, 중앙정부가 전국으로 균질적인 서비스의 지원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지방 정부는 지역 상황에 맞춘 정책 수행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실질적 주체로써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돌봄 지원 체계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두 개의 사례는 지역 단위의 돌봄 지원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확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먼저, 성북구의 사례를 통해서는 지역 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돌봄이 주된 서비스 이용 시간과 지원 대상, 지원 기관 등에 따라 돌봄 지원 정책으로부터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촘촘

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수요를 시간대별로 예측하여 지역민이 어떠한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매우 인상적이다. 주로 초등 저학년 자녀를 위한 초등 돌봄 교실, 방과후 학교 등과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등의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되는 일반적인 돌봄 서비스 정책이긴 하나, 성북구 지역민의 요구를 파악하여 돌봄 시간별로 아동의 연령과 서비스 제공 기관 등에 따라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것이다(발표자료 12페이지). 다만, 이러한 돌봄의 지원이 지리적으로 이용이 편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발표문을 통해서는 확인이 어려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와 고려가 요구된다. 토론자가 개인적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성북구의 일반적 현황을 간략히 검색해본 결과에서 성북구 내에서도 동 혹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지역적 상황이 매우 상이함으로 알 수 있었으며, 돌봄 지원은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모두 반영하여 설계될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영유아, 아동기 자녀 중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분명한 이동의 제약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같은 구에 살더라도 돌봄 지원은 수요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분된 형태로 지원될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또한, 발표문을 통해 미루어 보건데 현재 성북구의 돌봄 지원은 주로 초등 돌봄 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을 통한 지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 즉, 지역 내 촘촘한 돌봄 체계의 구성을 관 주도의 인프라를 통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관이 주도하는 돌봄 지원 체계의 구성은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지역 내 특수한 돌봄 수요를 가진 이들에 대한 특화사업이 어떠한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보기 어려웠다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다.

반면, 예술인 자녀 시간제 돌봄 사업의 경우에는 매우 특수한 돌봄 수요를 가진 수요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 상태의 돌봄 서비스 지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사료된다. 특히 문화관광부가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관주도형 사업이라기보다 민간이 매우 주도적이고 자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띠며, 우수한 민관 협력 모형으로 제시가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사업의 목적과 지원 대상이 처음부터 매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진행된 사업이니만큼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보편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높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 하지만, 이처럼 지역 내 특수한 상황

1) 현재 성북구 돌봄망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시행중인 사업들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 보육사업이나 어린이집 등의 주말 보육,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여성가족부) 등은 논의의 편의상 제외된 것으로 판단되나, 돌봄망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임.

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부합하는 특수한 돌봄 서비스의 개발과 적용이라는 포괄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매우 유용할 뿐 아니라 향후 확장의 필요성도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즉, 성북구와 같이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내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보편적으로 통합적인 돌봄망의 구축(온종일 돌봄 체계)과 함께 온종일 돌봄 체계 안에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특수 시책을 포함함으로써, 지역 내 돌봄 요구에 부합할 뿐 아니라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지원 체계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예를 들어, 성북구의 경우 지역 내 대학가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술인 자녀 시간제 돌봄 사업과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학생 혹은 시간 강사 등을 위한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안 등이 병행된다면, 지역 구민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에서 상당시간을 보내야 하는 입장의 수요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러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예술인자녀 시간제 돌봄 사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지원 종류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근거의 마련은 보다 포괄적 형태로 언급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예술인 자녀의 경우 주말 혹은 야간 시간대, 부모의 근로시간에 맞춘 간헐적 이용 요구였지만, 경우에 따라 주간 시간대의 간헐적 돌봄 수요일 수도 있고, 혹은 교육서비스와 접목된 형태의 돌봄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서비스(가정 방문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들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사회의 돌봄망은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한 보편적 돌봄 지원 체계(초등돌봄교실 등)과 함께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특수 시책을 병행하는 형태로 구성,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 지자체 사업이 아니더라도 타 부처의 돌봄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 체계로 포괄하여 논의하는 것이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발표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통계 수치의 확인과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의견을 드리자면, 성북구 사례 발표문의 3페이지, 가구소득별 돌봄 현황자료의 비중, 6페이지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총계 자료는 수치가 오류로 보이므로, 확인을 요한다. 또한, 9페이지 수요예측 부분도 해당 시간(하원시간)을 기준을 한 그 시점에서의 수치인지, 누적적인 수치인지가 헷갈리는 형태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으므로 수정을 요한다. 예컨데, 16:00~를 2,610명으로 보정치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보면 16시에서 15시 사이에 하교하는 아이들만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따라서 이때까지 이용자는 앞서 4,960+2,610=7,570명), 주야간 경계 돌봄 수요는 17:00 ~ 5,710명과 18:00~ 1,847명을 더해서 7,017명으로 산출되어 있다. 이때 문제는 17:00에

하교하는 아이들은 앞서 시간에 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앞쪽 주간 돌봄 수요에 이 수치가 누적적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혹은 모든 시점에서의 자료를 해당 시간에 이용자 총량으로 계산하든지, 명확한 형태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여성가족부조사치는 이러한 형태인 것으로 추정됨).

마지막으로 예술인 자녀 시간제 돌봄 사업에 제안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마을돌봄센터〉의 필요성과 성북구 자료 중 어린이집의 공급 초과분을 지역아동센터, 온종일 키움센터,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 유도하여 돌봄 수요를 충족한다는 계획은 상당한 논의과정과 시설의 변경에 대한 법제 정비가 선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기에 완성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마을돌봄센터〉는 필요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기존의 돌봄 지원 체계에서 이를 포괄하여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반대로 어린이집의 전환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법제 정비가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퇴출 위기의 어린이집을 다른 초등 돌봄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전환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격 요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요하는 사안이라고 사료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초저출산 시대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향후 과제(Ⅲ)
: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의 쟁점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